

'뜨겁다, 야구 열기' 시범경기 매진 행렬...주말 2연전 관중 13만8522명

등록 2025.03.09 16:54:20



[서울=뉴시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김지찬이 9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5 KBO 시범경기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6회말 2타점 적시타를 치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삼성 라이온즈 제공) 2025.03.0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본격적인 정규리그 개막 전부터 야구 열기가 심상치 않다. 시범경기부터 매진 행렬이 이어지며 역대 최다 관중 기록을 새로 세웠다.

9일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따르면 이날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SSG 랜더스의 2025 KBO 시범 경기에는 2만563명의 관중이 들어찼다.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티켓을 오픈한 모든 좌석에 관객들이 자리를 채웠다.

이날 KIA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가 맞붙은 부산 사직구장에도 1만7890명이 방문하며 매진 행렬을 이뤘다.

청주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 한화 이글스의 경기는 전날 시범경기 개막전에 이어 이날까지 9000명의 관중이 들어서며 이들 연속 매진을 기록했다.

수원 KT위즈파크(LG 트윈스-KT 위즈)에는 1만4057명이, 창원 NC파크(키움 히어로즈-NC 다이노스)에는 7278명이 찾으며 이날 열린 다섯 경기에 총 7만1288명의 관중이 입장했다.



[서울=뉴시스] 9일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2025 KBO 시범경기에 1만7890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았다. (사진=롯데 자이언츠 제공) 2025.03.09.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날 세운 역대 시범경기 일일 최다 관중 기록도 하루 만에 경신했다.

8일 전국 5개 경기장에서 열린 2025 KBO 시범경기 개막전엔 총 6만7264명의 관중들이 경기장을 찾은 바 있다.

이로써 프로야구는 올 시즌 시범경기 개막 2연전에 역대 최다 13만8552명의 관중을 동원했다.

1000만 관중 시대를 연 지난해와 비교해도 두 배 가까이 많은 관중들이 경기장을 찾았다.

지난해 3월 열린 2024 KBO 시범경기 주말 개막 2연전에는 총 7만3862명의 관중들이 몰려들었다.

프로야구는 지난해 정규시즌 총 720경기에 1088만7705명의 관중을 불러 모아 1982년 출범 이후 처음으로 1000만 관중을 돌파했다. 2017년 기록했던 역대 최다 관중 840만688명은 훌쩍 뛰어넘었다.

올해는 시범경기부터 지난해를 능가하는 관중 동원력을 보여주며 일찌감치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l@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